제36회 기독교학문학회 발표논문 (19.10.26)

대학원생 교육B/03/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에서의 인간다움에 대하여
-기독교교육적 고찰을 중심으로-

김병재(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독교교육학 박사과정)

논문초록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인간 본연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인간 자신에 대한 믿음이며 이로 인해 인간의 삶은 변한다. 그만큼 인간관은 개인이나 사회에 근본적이며 표면적이다. 근자에 포스트휴머니즘이라는 새로운 인간관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기존 휴머니즘에 대한 강화 및 비판적 성찰을 나타내는 이 새로운 인간관에 대해 기독교는 대답을 해야 한다. 특별히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인간관은 더욱 그렇다. 학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교육의 모습은 바뀌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시대를 대표하는 포스트휴머니즘의 인간관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기독교적 비판을 한다.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의 인간관의 차이와 공존 가능성에 대해 논하며,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통한 기독교교육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가를 고찰한다.

주제어 : 인간관, 포스트휴머니즘, 트랜스휴머니즘, 하나님의 형상, 기독교교육

I. 들어가는 말

폴 고갱(Paul Gauguin)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작품을 통해 사람의 기원, 정체성, 미래에 대한 고뇌를 전했다. 고갱 뿐 아니라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끊이지 않았던 질문이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질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사회와 문화의 모습으로 명확히 표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규정은 그 성격 면에서 매우 본질적이며 또한 표면적인 이중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인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른 바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이 그것이다. 말 그대로 보자면 '후기', '탈' 휴머니즘, 즉 계몽주의를 시작으로 근대까지의 휴머니즘의 종식을 뜻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지금까지 인간이 인간을 중심으로 세워온 기준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로지 브라이도티, 이경란 역, 2015: 8). 포스트휴머니즘이 등장한 배경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가 기존의 휴머니즘과 주체에 대한 비판적 해체를 시도하면서이다. 둘째,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간의 삶의 급격한 변화가 그것이다(김재희, 2014: 216).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은 포스트휴머니즘과 함께 흐르는 또 하나의 물줄기다. 포스트휴머니즘은 트랜스휴머니즘보다 더 넓은 영역을 표현하지만 모두 과학을 기반한 첨단기술 사회를 시작으로 출발한 흐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둘은 그 실천적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이지만 세 가지 측면에서 결을 같이 한다. 첫째, 계몽주의적 인간관으로 인한 기술기반 사회가 두 흐름의 출발이라는 점. 둘째,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새롭게 정의하자는 면. 마지막으로 인간이 계속 변화하는 존재라고 전제한

다. 그래서 포스트휴머니즘은 포스트휴먼을, 트랜스휴머니즘은 트랜스휴먼을 진화의 다음단계로 그린다. 그럼 이런 흐름 안에서 기독교는 왜, 지금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하는가.

첫째, 성경이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을 하고 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엇이라고 하시는가'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배하는 출발점이다.

둘째, 시대의 변화가 '인간다움'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하게 한다. 기술기반 사회는 더욱 인간이 고민할 수 없도록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대의 고도로 발달된 기술에서 더욱 중요한 질문은 "생명과 인간에 대한 정의"이다(마르티나 헤슬러, 이덕임 역, 2011: 207).

셋째, 기독교교육은 기독교적 인간이해에서 출발한다. 교육은 인간론과 밀접한 관계이다. 교육의 대상 자체가 '인간'이며, 교육학의 기본을 이루는 존재, 인식, 교육철학, 교육방법 모두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와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인간론은 본질적이며 표면적이다. 다음 장에서는 연구의 비판적 대상이 되는 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II. 포스트휴머니즘의 이해

포스트휴머니즘은 휴머니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 시작으로 볼 수 있지만 가장 주된 출발점은 기술이다. 때문에 본 장의 본론적 내용에 앞서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잠시 살펴봄으로써 포스트휴머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틀을 갖도록 하겠다.

1. 기술과 인간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주제는 4차산업혁명의 이해였다. WEF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모든 영역에 근본적인 "변화(fundamental change)"를 일으키기 때문에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what it means to be human)"에 대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World Economic Forum, 2019년 8월 14일).

WEF의 언급은 인간이 기술의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은 인간의 역사가 증명하는 데, 기술은 언제나 인간의 생각과 신념, 생활까지 바꾸었다. 예를 들어, 시계의 발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에서 "영원성"보다는 현실의 삶에 천착하도록 하였다. 이는 '영원'에 대해 비판한 수많은 철학자들의 말보다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력 면에서 압도적이었다(닐 포스트먼, 홍윤선 역, 2014: 29). 또한 TV의 발명으로 이제 사람들은 '읽기'보다 대부분 '보게' 되었고 "시각적인 만족감" 대신 깊은 사고력을 잃게 되었다(닐 포스트먼, 홍윤선 역, 2014: 148). 인터넷은 인간의 "사색 능력"을 감소시켰고 생각의 깊이, 더 나아가 감정의 깊이까지 바꿔놓게 되었다(니콜라스 카, 최지향 역, 2014: 319). 이런 기술에 따른 인간의 변화가 위협적인 이유는 역동적인 기술의 변화가 근원적인 인간의 변화를 소리없이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술화의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다. 기술이 우리 삶에 너무나 친숙하기 때문이다(마르티나 헤슬러, 이덕임 역, 2011: 13). 고도의 기술 위주 사회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포스트휴머니즘과 트랜스휴머니즘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간은 기술을 창조하고 기술은 인간을 변화시키며, 더 나아가 기술로 인해 인간관이 재구성된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이러한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배경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2.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2016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은 우리에게 모호하기만 했던 4차산업혁명이라는 담론을, 적어도 정서상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다. 4차 산업혁명 아래 기계학습과 딥러닝 등을 통해 비약적인 발달을 보여주고 있는 분야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며(마쓰오 유타카, 박기원 역, 2016: 63), 이 외에 수많은 분야들이 서로 융합하는 추세이다(World Economic Forum, 2019년 6월 12일). 트랜스휴머니즘은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휴머니티 플러스(Humanity+)의 트랜스휴머니스트 선언(Transhumanist declaration)은 "다가오는 시대에서 인간은 근원적인 부분까지 과학과 기술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노화, 인지적 결함, 어쩔 수 없는 고통을 극복할 것이며 지구의 한계를 벗어날 것이라 기대한다(humanity+, 2019년 6월 12일)."라고 명시한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이미 영화로 많이 소개되었다. 『트랜센던스』(2014)와 채피(2015)는 신경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뇌맵핑을 주제로 한다. 『알리타』(2019)는 생체공학 기술을 통한 인간과 기계의 융합을, 『그녀』(2013)는 인공지능 대화프로그램의 극단적인 발달을 통해 인공지능에게 애정을 느끼게 되는 한 남자를 주인공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가타카』(1997)와 『아일랜드』(2005)는 유전공학 기술, 특별히 유전자 편집기술을 통한 유전자 편집 아기와 복제인간을 소재로 한다.

고도의 과학기술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의료적 목적을 시작으로 한 생체공학(Biotechnology)이 대표적이다. 등반 중 사고로 무릎 아래를 모두 잃은 휴 허(Hugh Herr)는 생체공학을 통한 '바이오닉 다리'를 가지고 있다. 그의 다리에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사용되는 관성측정장치는 발의 위치, 지형과 속도에 따라 걸음을 조절하며, 인간을 초월한 힘을 낸다(에덤 피오리, 유강은 역, 2019: 34). 이외에도 허벅지 근육의 90퍼센트를 잃은 군인이 '세포외 기질'(ECM) 삽입을 통해 근력의 97퍼센트가 회복된 사례(에덤 피오리, 유강은 역, 2019: 118), 신경과학의 발달로 시각을 잃은 사람이 청각을 통해 사물을 '보게' 된 사례도 있다(에덤 피오리, 유강은 역, 2019: 174-184). 이와 같은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바라는 이상(理想)의 근거다. 세계트랜스휴머니스트협회(WTA)의 공동창립자인 데이빗 피어스(David Pearce)는 나노기술과 유전공학을 통해 현재 우리가 겪는 끔찍한 경험들,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 단언한다(David Pearce, Kindle Edition: 265).

트랜스휴머니즘에 의하면, 호모 사피엔스는 '호모 몬스터쿠스'(Homo monstercus), '네오휴먼'(Neo-human) 등으로 진화되어야 한다(몸문화연구소, 2017: 107).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는 이러한 트랜스휴머니스트들과 결이 같다. 그는 호모 사피엔스가 지금까지 겪었던 역사는 "자연선택의 기간"이었으나 이제는 "지적인 설계(조작)가 지배하는" 시대라고 말한다(괄호 필자).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생명공학", "사이보그 공학", "비유기물공학", 즉 과학기술이다(유발 하라리, 조현욱 역, 2018: 564).

트랜스휴머니즘은 '유물론적'이다. 유물론적 입장의 탈-인간중심주의는 '종(種)'을 넘어선 인간의 위치를 주장한다(로지 브라이도티, 이경란 역, 2015: 78-79).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인간중심주의는 효력을 잃었다(몸문화연구소, 2017: 56). 그래서 포스트휴머니즘(트랜스휴머니즘)에 따르면, 인간과 동물이 '인간-동물의 구조'가 아닌, '모두 동물'로 존재해야 한다(로지 브라이도티, 이경란 역, 2015: 106). 더 나아가 '인간-기계'도 마찬가지다.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과학기술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신체의 강화, '혼종'(인간과 기계의 결합)과의 공존, 유전적 조작을 통한 지적, 정서적 능력까지 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로지 브라이도티, 이경란 역, 2015: 570). 트랜스휴머니즘은 건강한 육체를 넘어 영원한 육체를, 인간 외부의 개선을 넘어 인간

내부의 개선까지 꿈꾼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음'을 정복하길 원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숙명이 아니라 기술의 문제"가 되었다(몸문화연구소, 2017: 176). 요약하자면, 트랜스휴머니즘은 기존 휴머니즘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이라기보다 강화이다. 더욱 인간 중심적인 강화와 변화, 기계와 인간의 공존과 혼종을 과정이자 종착으로 본다.

3. 포스트휴머니즘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은 새들이 울지 않는 '적막함'을 생명이 움트는 '봄'에 빗대어 『침묵의 봄』(Silent Spring)이라 하며 농약에 오염된 땅에서 일어난 생명의 죽음을 고발한다(레이첼 카슨, 김은령 역, 2003: 34-35). 그녀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이 모든 재앙의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며 지구가 "인간만의 것"이 아닌 "모든 생물과 공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레이첼 카슨, 김은령 역, 2003: 333). 카슨의 주장은 포스트휴머니즘으로 가는 과도기적 위치이다. 계몽주의를 거치며 형성된 인간관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였다. 하지만 이런 휴머니즘의 흐름은 인간중심주의에 힘입어 과학기술을 통해 자연을 착취했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경험하게 하였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이 규정해온 '인간의 위치'나 '권위'를 의심하고, 해체하는 흐름으로 현대철학의 주체비판과 결을 같이 한다. 인간은 "충동과 영향, 그리고 언어에 의해" 변화하는 존재다(강영안, 2007: 279). 이런 이유로, 인간 주체는 역사의 과정을 통해 생산된 것이다(김재희, 2014: 216). 포스트휴머니즘은 정치, 사회, 자연, 역사, 문화, 과학 등 모든 영역에서 기존의 유럽중심적이고 제국주의적 성격인 '휴머니즘'에 대한 반성이며, 더 나아가 반(反)휴머니즘이다(로지 브라이도티, 이경란 역, 2015: 39). 포스트휴머니즘은 휴머니즘적 주체를 비판함으로써 인간 외부와의 '공존'을 중요시한다. 흥미롭게도 장회익은 물리학과 생물학에서 이러한 공존의 개념을 설명한다.

> 여전히 '나'이며, 이 '나'라고 하는 주체를 벗어날 길은 없다.....중략.....이를 넘어설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다면 이런 '나'를 확장해 더 큰 '나'를 만들어가는 길이다. 그 한 가지 방식은 여타의 주체를 대등한 주체, 곧 '너'로 인정하면서, 다시 '나'와 '너'를 결합해 더 큰 '나', 곧 '우리'를 형성하는 일이다(장회익, 2014b: 234).

장회익은 이런 주체에 대한 개념을 자신의 '생명' 개념에 대입한다. 그래서 인간 역시 '온생명'(Global life)의 일부이다(장회익, 2014a: 86). 다른 동식물과 함께 인간도 우주적 생명의 참여자로 존재하며 동식물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생명에 대한 개체적 속성보다 거대한 유기적 연결성을 강조한다(장회익, 2014a: 87).

포스트휴머니즘의 인간관을 본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은 인간 외 존재들과 수평적 위치에 있다. 전통 휴머니즘이 인간을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두었다면 포스트휴머니즘은 모든 것과 공존하는 존재로 본다. 즉 인간을 인간이 아닌 존재들과 위계적 위치로 구분하지 않고 수평적 위치에 둔다.

둘째, 인간은 진화하며 변화한다. 이는 자연과학의 진화론과 '과정사상'의 영향이다. 진화론에서 말하는 인간은 (유물론을 기초로)우연에 따른 생물학적 진화의 산물이다. 또한 과정사상은 존재보다 사건들, 즉 "시간을 통해 발생하는 과정들"을 우위에 둔다. 고전적 휴머니즘에서는 존재(Being)를 가장 근원적인

차원이라고 보았지만(강영안, 2017: 239) 과정사상은 생성(becoming)이 더 근본적인 것이다(켈리 제임스 클락 외, 김지호 역, 2017: 13).

세 번째, 인간은 영원을 소유할 수 있다. 트랜스휴머니즘에 의하면 인간의 내면과 외면 모두 기술을 통해 강화할 수 있다. 이런 강화는 인간의 유한성, 특별히 인간 '몸'과 '생명'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포스트휴머니즘(트랜스휴머니즘을 포함한)의 인간관은 기독교적 입장과 어떤 연관성과 차이점이 있는가. 다음은 포스트휴머니즘의 인간관에 대한 기독교적 비판을 논한다.

4. 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한 기독교적 반성

(1) 인간의 위치: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수평적 위치에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967년, 린 화이트 2세(Lynn White, Jr)는 미국과학진흥협회에서 발표한 "생태학적 위기의 역사적 뿌리(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라는 논문을 통해 "기독교의 창조 교리"가 인간이 겪는 생태학적 위기 문제의 가장 크고 핵심적인 근거라고 주장하였다(Lynn white, Jr., 1967: 1203-1207). 화이트의 주장은 명백히 성경의 창조교리를 잘못 이해한 측면이 있지만 그의 주장처럼 인간이 다른 피조물을 잘 돌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이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사명을 주셨다. 첫 번째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보존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는 것이었다.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는 이 두 가지 사명이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보존하는 일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헤르만 바빙크, 원광연 역, 2006: 223). 인간은 땅의 흙으로 지어졌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피조물을 다스릴 책임이 있다(로버트 E. 웨버, 이승구 역, 2008: 45). 오직 인간만이 이렇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위치로 창조되었다. 특별히 아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하구조에 따라 인간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다.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었으며 "분류하고" "합당한 위치"에 놓은 것은 아담이 피조물들의 본질을 얼마만큼 꿰뚫고 있었는지 잘 보여준다(헤르만 바빙크, 원광연 역, 2006: 224). 결론적으로 포스트휴머니즘이 가진 문제의식의 출발점은 기독교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위치, 즉 다스리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동등하게 둘 수는 없다.

(2) 인간의 기원: 인간이 진화된 존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인간의 창조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점들이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특별한 신적 협의"를 통해 창조하셨다(최홍석, 2010: 61). 둘째, 다른 피조물들은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는 인간이 그 전에 창조된 다른 피조물들과 생물학적인 "계보" 안에서 상관이 없음을 밝혀주는 대목이다(나이젤 리, 이승구 역, 1996: 27). 셋째, 인간은 하늘의 방향성을 갖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땅의 방향성을 갖는 '흙'을 재료삼아 창조되었다. 짐승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흙으로만 지어졌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되었다(헤르만 바빙크, 박태현 역, 2011a: 637)."

역사적으로 교회는 위와 같은 인간의 창조를 의심한 적이 없지만 18세에 들어 확산된 '진화'의 개념은 유물론적 체계를 바탕으로 인간 창조에 대한 비기독교적 개념을 양산했다(헤르만 바빙크, 박태현 역,

2011a: 639). 진화는 '긴 시간'을 통해 무기물의 화학적 결합이 유기물의 기초를 만들었으며 여기서 수많은 종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RNA, DNA, 단세포들이 생겨났다고 주장하며 긴 시간의 우연, 유기화학적인 사건과 생물학적 기작을 거쳐 고등생물인 인간이 탄생했다고 본다. 이런 진화 개념은 후로 자연과학 전반, 특별히 우주론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쳤다. 문제는 이런 진화의 개념이 비성경적, 반(反)성경적이라는 사실이다. 현대에 와서 진화개념을 신학 안에 녹여내는 작업들도 이뤄지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첫 사람 아담도 진화된 존재이며 더 나아가 아담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니다.[1] 이렇게 진화는 성경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의 역사성, 그의 창조를 포함한 창세기의 시공간성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성경의 구원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그 심각성이 크다.

(3) 인간의 유한성: 기술로 영원을 바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인간은 영혼 뿐 아니라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우리 주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본질이며,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고든 스파이크만, 류호준, 심재승 역, 2009: 279). 인간은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다.[2]

성경은 인간의 구성적 본질, 즉 영과 육체를 구분한다. 하지만 고대 관념론적 인간관은 영에 비해 육체는 하등하며 벗어나야 할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영혼의 영원성은 강조하지만 몸의 부활은 부정한다(앤서니 후크마, 이용중 역, 2013: 13). 하나님께서 인간을 짐승과 함께 흙으로 지으셨기에 생물학적 기작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이 많으며 이런 이유로 인간의 몸을 화학적, 기계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기도 한다(그리스틴 메데페셀헤르만 외2명, 2007: 18-25). 이런 인간의 육체적인 특징과 생물학적인 원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법칙 안에 있다. 열역학 제 2법칙에 의해 인간의 육체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계속해서 노쇠하거나 낡아진다. 그리고 인간과 생명체들은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한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 육체의 유한성을 고대 관념론적 인간관의 구조로 본다. 인간 육체의 유한성은 물리쳐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인간의 물리적 질병과 정신적 고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것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하지만 이런 선한 노력들은 인간의 타락과 버무려져 인간 육체의 유한성을 넘어 영원을 살고자 하는, 생물학적 죽음을 정복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변질된다. 죽음이 인간 삶의 궤적이 아닌 악으로 인식되는 것이다(프랜시스 후쿠야마, 송정화 역, 2003: 119). 성경은 인간의 육체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 인간의 육체는 이 땅에서 죽어 없어질 존재로만 있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인간 본성도 승귀에 참여"했듯이 인간 또한 부활할 육체를 꿈꾸는 존재이며, 그렇게 신자는 죽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정복할 것이다(헤르만 바빙크, 박태현 역, 2011b: 538). 그렇기 때문에 영원의 기반은 트랜스휴머니즘에서 말하는 기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다.

---

1 자세한 논의는 다음 책을 참고하라. 피터 엔즈, 『아담의 진화』, 장가람 역 (서울: CLC, 2014).

2 중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 의지를 발현시키며 행동하도록 한다. 이처럼 인간은 지성과 행동이 의지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인적 존재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조나단 에드워즈, 『의지의 자유』, 김찬영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214.

III. 기독교적 인간다움, 하나님의 형상

1. 하나님의 형상

화가가 자신의 작품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뜻을 전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친히 피조물을 통해 자신의 "영원한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기뻐하신다(웨스트민스터 총회, 그 책의 사람들 역, 2018: 62). "생명과 수액"을 전달하려는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피조물에게 전달되는 것이다(조나단 에드워즈, 존 파이퍼, 백금산 역, 2006: 217).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존재다(창세기 1:26; 에베소서 4:24). 피조된 모든 것들 중 가장 뛰어난 존재로 구별되었다는 사실이 인간의 존재 자체로 선언된 셈이다(존 칼빈, 원광연 역, 2003: 227). 후크마(Anthony A. Hoekema)는 하나님의 형상이 뜻하는 바를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을 반영한다(앤서니 후크마, 이용중 역, 2013: 102).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만이 드러낸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울에 비친 상인 어떤 존재"로서 창조된 것을 말한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본질적으로 인격적 관계의 존재라는 걸 말해준다. 인격적 관계,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 서로를 필요로 하는 모습에서도 나타난다(최홍석, 2010: 78).

둘째, 인간은 하나님을 대표한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특사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해야 하는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직분을 받았으며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든 스파이크만, 류호준, 심재승 역, 2009: 284). 인간의 직분은 "중재의 역할을 포함"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창조세계에 대해 이중적 책임을 가진다(고든 스파이크만, 류호준, 심재승 역, 2009: 287-288). 인간이 다스려야할 영역은 개인의 일상생활과 타인과의 관계, 정치, 문화, 예술, 경제 등 인간을 둘러싼 모든 분야를 말한다. 이 모든 영역들은 하나님의 대표자, 신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한다.

2. 타락한 상태의 하나님의 형상

타락은 인간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성을 어둡게" 하였고, 결국 "의지의 행동에서 그 절정"을 이뤘다(헤르만 바빙크, 원광연 역, 2006: 270). 타락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의지적 구테타였기 때문에 타락 전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기를 바라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여 그 명령을 이루며 살길 바라는 "욕망"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성향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즉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꿈꾸면서 욕망의 방향은 하나님에서 자기에게로 돌려진다(마이클 호튼, 조계광 역, 2015: 143).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시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돌려진 욕망의 방향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도록 하였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려 절망의 상태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형상의 왜곡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며,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그러져 버렸다. 때론 이웃이나 피조세계를 예배하려 하고, 이웃을 다스리려 하거나, 더 나아가 하나님을 다스리려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인간의 모습은 왜곡되어 변질되었고,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인간의 역할 또한 왜곡되어 파괴를 일삼았다. 이는 하

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한 청지기로서 피조물을 다스려야 하는 인간이 오히려 피조물을 "공격"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로버트 E. 웨버, 이승구 역, 2008: 49).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성의 왜곡은 이웃을 "공격하고 배신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코넬리우스 플랜팅카 Jr., 오현미 역, 2017, 23).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잃지 않았다. 타락 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니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신다(창세기 6:9). 이는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미약하게나마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타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극히 비참하다는 뜻과 동시에, 아직까지 인간에게 하나님을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3.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구원을 인간에게 베푸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구원이 예정된 이들에게 은혜언약을 주셨다(웨스트민스터 총회, 그 책의 사람들 역, 2018: 96).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되며 그리스도는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반역의 죗값을 갚아주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며, 우리를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구원"이 되신다(고린도전서 1:20).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하나님 형상 회복은 구원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회복은 구원, 즉 중생, 성화, 영화로 볼 수 있다. 중생은 타락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며, 성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생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존 칼빈, 원광연 역, 2010: 87). 또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의지를 갖게 한다. 나아가 인간에게는 성화의 은혜가 주어진다. 성화는 중생을 통해 주어진 의지, 하나님을 향하고픈 지향성으로 끊임없이 죄의 습관과 싸우는 것을 말한다. 적극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피조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뤄진다. 이 때 비로소 인간은 영화의 상태에 이르고 온전히 하나님을 반영하게 된다(최홍석, 2010: 91-92).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응당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한다.

다음 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교육이,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에 가져야 할 방향성과 실천을 제시한다.

IV. 하나님의 형상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교육적 고찰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학생의 인간관, 하나님의 형상을 염두하지 않고 교육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교육이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Donovan L. Graham, Kindle Edition: 1402).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학교 교육은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이해를 기초로 교육과정을 생각해야 한다. 이번 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회복을 위한 교육을 중생, 존중, 삶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중생을 위한 교육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기술로 해결될 것이라 한다. 하지만 인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만 해결되며 이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뜻한다. 기독교교육은 '중생'을 강조해야 한다. 중생은 지식의 인식론적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중생을 통해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의 원리 아래서 새롭게 다가오며, 배우게 되는 모든 지식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의 원리에 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 이런 인식론적 변화로 인해 인간의 의지가 변화되고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중생을 위한 기독교학교의 노력을 다음 두 가지로 제시한다.

첫 번째, 기독교학교에서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 요즘 교육기관의 관점을 강조하여 기독교학교를 정의하는 움직임이 많다. 그래서 복음과 예배는 교회의 일로 본다. 이런 주장은 교회의 교회됨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기독교학교가 기독교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중생'은 필수적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중생은 기독교학교가 '교육기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다.

두 번째, 성경적 관점으로 통합된 수업을 해야 한다. 중생을 통해 기존의 지식을 배우게 되는 지식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하나님 중심적 사고는 훈련을 필요로 한다. 교사는 학생이 배우는 지식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귀속될 수 있는지 끊임없이 훈련시켜 생각의 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특별히 전인적 교육을 목적으로 한 통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체육이 '몸'만을 위한 교과가 아닌 "몸과 영혼, 인간의 전인을 상대하는 교육"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C. A. 반 퍼슨, 손봉호, 강영안 역, 1985: 19). 학생들은 모든 교과들을 통해 피조세계의 모든 것, 수많은 지식들이 유기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는 기독교학교 내의 학생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지식의 기쁨을 맛보고 반응하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된다.

2. 존중을 위한 교육

포스트휴머니즘은 타인의 개별성, 특성을 무시하지 않으며 타인과 다른 존재와의 공존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교육의 중요한 중심축은 '경쟁'이다. 교육이 학생들을 위계적 구조 안에 집어넣고 타인을 '내가 이겨야 할 존재'로 규정하도록 한다. 이런 교육의 어두운 면은 이 땅에 세워진 기독교학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특별히 경쟁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대학의 입시구조는 기독교학교라고 해서 별다른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는 학생끼리의 문제로만 남지 않는다. 학생과 교사의 관계도 입시구조 안에서 어그러진다(김병재, 2018: 34-38). 이런 맥락에서 포스트휴머니즘은 기독교적 인간관과 긍정적 가치를 공유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 대한 휴머니즘적 접근을 초월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삼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존중한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학교는 교육 목적 중 하나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타인 존중'을 둘 필요가 있다. 존중의 교육 목적 안에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돌보는 긍휼의 관점도 있다. 더 나아가 이를 뛰어넘어야 하는 데, 그 적극성의 근거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에게 있어서 "자유는 책임에 선행한다"라는 명제가 "책임은 자유에 선행한다"로 바뀌게 된다. 왜냐하면 레비나스에게 있어서 자유는 "힘없는 타인에 얼굴"에 의해 규정되며, 권력에서 나오는 자유가 아닌, "타인의 부름에 응답"하며 타자의 "고통에 반응"하고 "타인에게 책임"질 때, 비로소 '자유'의 의미를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타인의 선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고려한 자유의 행사는 악이 될 수 있다"(강영안, 2017: 246-247). 인간은 "대상"과 "세계"와 "타자"를 통해 진정한 "존재"로 자리를 잡는다(에마뉘엘 레비나스, 서동욱 역, 2003: 170).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타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적극성을 나타낸다. 개인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 아닌, 타인을 통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이다. 기독교학교는 "내 자신을, 나의 사유의 틀을, 나의 존재 이해의 틀(강영안, 2017: 249)"을 뛰어넘어 하나님 형상의 다양한 양상들이 개인 안에 자리잡도록 해야 하며, 교육의 내용과 방법, 행정, 더 나아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타인 존중을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3. 삶을 위한 교육

이번 장에서는 구체적 교육방법보다 방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포괄적 주제를 '몸, 일상, 다스림'으로 제시한다.

첫째, 몸을 위한 교육. 트랜스휴머니즘은 기술을 통해 인간의 몸을 바꾸기 원한다. 하지만 인간의 영과 몸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다. 몸은 인간이며 인간의 "존재와 더불어 영속성을 가지고 현존한다"(심귀연, 2019: 174).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은 단순한 유기체가 아니다.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물리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능력들조차 인간다움의 존재적 양상이다(C. A. 반 퍼슨, 손봉호, 강영안 역, 1985: 131). 학생들은 학교에서 '몸'을 통해 경험하면서 '인식'이 넓어지고 깊어진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기의 몸을 알고, 건강하게 보존하며 지키고, 더 확장하여 타인의 몸을 그렇게 대하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기독교학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몸을 중요시해야 하는 이유는 실천과 삶의 기초이자 시작을 '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일상을 위한 교육. 이는 '몸을 위한 교육'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세 번째 주제인 '피조세계'로 나가기 위한 발단이다. 앞선 세대의 대부분은 학생들에게 비범함을 요구한다. 물론 비범하고 특별한 삶을 살아갈 학생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모든 아이들에게 비범함을 권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일상의 삶을 터부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비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이기 때문이다. 섭리로 유지되는 생명이 터잡는 곳은 일상이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몸을 토대로 인간이 뿌리내리는 지점이 '일상'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일상은 개인이 다스려야 하는 1차적 영역이다. 하나님의 형상인 학생들은 하나님의 꾸준한 역사, 그 은혜를 일상 속에서 알아가야 한다. 기독교학교는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에 이런 일상적 삶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기독교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가정에서 수고하는 어머니를 보며 주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잘 가꾸는 하나님의 형상을(마이클 호튼, 조계광 역, 2015: 318), 일터에서 땀흘리는 아버지를 보며 주어진 일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상에서 함께 대화하는 친구들을 보며 그들의 말투, 성품, 행동 등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다스림을 위한 교육. 포스트휴머니즘이 추구하는 인간관은 인간이 아닌 존재와의 공존을 포함된다. 프랜시스 쉐퍼(Francis Schaeffer) 또한 환경오염 문제를 거론하며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 대해, 그 하나하나를 존중할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프란시스 쉐퍼, 김진흥 역, 1995: 45).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청지기적 책임, 다스림의 책임이 있다. 환경보전은 다스림의 영역에 있어서 일부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에서 허용된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다스려야 한다(아브라함 카이퍼, 김기찬 역, 2008: 41). 특별히 기독교학교 각 교과가 지향하는 피조세계에 대한 소중

함을, 책임을, 다스림을 강조해야 하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과 연결되는 지,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를 교육해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살아가는 개인적, 공동체적, 사회적 현실을 바라보며 신자가 가진, 변하지 않는 신앙의 내용을 토대로 변증법적인 과정을 통한 현실 적용적 해석이 기독교학교에 필요하다.[3]

V. 결론 및 제안

기독교학교의 교육은 역사적 신앙고백과 올바른 교의학에 밑바탕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학교'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의 참여자, 대상 모두 인간인고로 성경에 뿌리내린 인간관은 기독교학교 교육에 필수적이며, 이것이 없이 교육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 시대의 사상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처하는 것은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의 의무이다. 이는 포스트휴머니즘의 인간관을 대하는 기독교교육의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전반적인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에 두 가지 연구 제안을 통해 기독교교육적 적용을 함께 보충해주길 바란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더 깊게 적용해야 한다. 연구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긴 주제들 하나하나의 깊이가 기독교교육적 고찰 및 적용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각 주제에 대한 좀 더 깊은 성찰이 요구되는 바이다. 둘째, 실제적 적용 사례가 필요하다. 교육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교육으로 나타나야 한다. 현장교육을 통해 피드백된 내용들은 교육과정을 좀 더 밀도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제로 한 교사별, 교과별, 수준별, 환경별 등의 다양한 수업을 제안한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학교의 교육이 더욱 경건해지고 활발해지길 바라며 연구를 마친다.

---

3 이런 입장에서 교육과정을 연구한 교육학자는 토마스 H. 그룸이 있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토마스 H. 그룸,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교 신앙 교육의 새로운 비전』, 조영관, 김경이, 임숙희 역(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5).

참고문헌

Donovan L. Graham, *Teaching Redemptively.* Kindle Edition.

Perace, David. *The Hedonistic Imperative*. Kindle Edition.

White, Lynn, Jr.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 *Science. New Series*. Vol. 155. No. 3767. Mar. 1967. 1203-1207.

Bavinck, Herman (1956). *Our Reasonable Faith*. 원광연 역(2006).『개혁교의학 개요』. 고양: 크리스챤다이제스트.

_____ (2004). *Reformed Dogmatics, Vol. 2: God and Creation.* 박태현 역 (2011a).『개혁교의학2』. 서울: 부흥과개혁사.

_____ (2006). *Reformed Dogmatics, Vol. 3: Sin and Salvation in Christ.* 박태현 역 (2011b).『개혁교의학3』. 서울: 부흥과개혁사.

Braidotti, Rosi (2013). *The Posthuman*. 이경란 역 (2015).『포스트휴먼』. 파주: 아카넷.

Calvin, John (1559).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원광연 역 (2003).『기독교강요. 상』. 고양: 크리스챤다이제스트,

Calvin, John (1559).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원광연 역 (2010).『기독교강요. 중』. 고양: 크리스챤다이제스트.

Carr, Nicholas (2010). *THE SHALLOWS: What the Internet Is Doing to Our Brains*. 최지향 역 (2014).『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서울: 청림출판.

Carson, Rachel (1962). *Silent Spring*. 김은령 역 (2003).『침묵의 봄』. 서울: 에코리브르.

Edwards, Jonathan (2009).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 Freedom of the Will*. 김찬영 역 (2016).『의지의 자유』. 서울: 부흥과개혁사,

Enns, Peter (2012). *Evolution of Adam*. 장가람 역 (2014).『아담의 진화』. 서울: CLC.

Fukuyama, Francis (2002). *OUR POSTHUMAN FUTURE*. 송정화 역 (2003).『부자의 유전자 가난한 자의 유전자』. 서울: 한국경제신문.

Groom, Thomas. H. (2011). *Will There Be Faith?*. 조영관 외 2명 역 (2015).『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교 신앙 교육의 새로운 비전』. 서울: 카톨릭대학교출판부.

Harari, Yuval Noah (2011). *SAPIENS*. 조현욱 역 (2018).『사피엔스』. 파주: 김영사.

Heßler, Martina (2012). *Kulturgeschichte der Technik*. 이덕임 역 (2011).『기술의 문화사』. 서울: 생각의나무.

Hoekema, Anthony A. (1986). *Created in God's image*. 이용중 역 (2012).『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부흥과개혁사.

Horton, Michael (2014). *Ordinary*. 조계광 역(2015).『오디너리』. 서울: 지평서원.

Kelly, James Clark. (2004). *101 Key Terms in Philosophy and Their Importance for Theology*. 김지호 역 (2017).『101가지 철학 개념』. 서울: 도서출판100.

Kuyper, Abraham (1931). *Lectures on Calvinism*. 김기찬 역 (2008).『칼빈주의 강연』.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Lee, F. Nigel. (1983). *The Origin and Destiny of Man*. 이승구 역 (1996).『성경에서 본 인간』. 서울: 엠마오.

Levinas, Emmanuel (1947). *(De)l'existence a l'existant*. 서동욱 역 (2003).『존재에서 존재자로』. 서울: 민음사.

Mädefessel-Herrmann, Kristin. (Ed.) (2004). *Chemie rund um die Uhr: Das Buch zum Jahr der Chemie*. 권세훈 역(2007).『화학으로 이루어진 세상』. 서울: 에코리브르.

Matsuo, Yutaka (2015). 人工知能は人間を超えるか : ディープラーニングの先にあるもの. 박기원 역(2016).『인공지능과 딥러닝』. 서울: 동아엠앤비.
Peursen, Cornelis Anthonie van (1966). *Inleiding tofeen wijsgerige antropologie: by Lichaan-Ziel-Geest*. 손봉호, 강영안 역 (1985).『몸 영혼 정신』. 서울: 서광사.
Piore, Adam (2017). *THE BODY BUILDERS: Inside the Science of the Engineered Human*. 유강은 역 (2019).『신체설계자』. 서울: 미지북스.
Piper, John (Ed.) (1998). *God's passion for his glory*. 백금산 역 (2006).『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 서울: 부흥과개혁사.
Plantinga, Cornelius (1995). *Not the way it's supposed to be : a breviary of sin*. 오현미 역 (2017).『우리의 죄 하나님의 샬롬』. 서울: 복있는사람.
Postman, Neil(1987). *Amusing Ourselves to Death: Public in the Age of Show Business*. 홍윤선 역 (2014).『죽도록 즐기기』. 서울: 굿인포메이션.
Schaeffer, Francis A. (1970). *Pollution and the death of man*. 김진흥 역(1995).『환경오염과 인간의 죽음』. 서울: 생명의말씀사.
Spykman, Gordon J (1992). *Reformational theology : a new paradigm for doing dogmatics*. 류호준, 심재승 역 (2009).『개혁주의 신학』. 서울: CLC.
Webber, Robert E (1979). *The Secular Saint*. 이승구 역(2008).『기독교문화관』. 서울: 토라.
강영안 (2007).『주체는 죽었는가: 현대철학의 포스트모던 경향』. 서울: 문예출판사.
강영안 (2017).『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김병재 (2018). "객관주의적 인식론이 기독교학교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한 비판적 연구: "중생"에 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재희 (2014).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철학연구」106.
몸문화연구소 (2017).『지구에는 포스트휴먼이 산다』. 서울: 필로소픽.
웨스트민스터 총회.『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노트』. 그 책의 사람들 역 (2018). 수원: 그책의사람들.
장회익.『생명을 어떻게 이해할까?』. 파주: 한울, 2014b.
장회익.『물질. 생명. 인간: 그 통합적 이해의 가능성』. 파주: 돌베개, 2014a.
최홍석.『인간론』.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10.

https://toplink.weforum.org/knowledge/insight/a1Gb0000001RIhBEAW/explore/summary. (검색일 2019. 4. 23)
https://intelligence.weforum.org/topics/a1Gb0000001RIhBEAW?tab=publications. (검색일 2019. 6. 12)
https://humanityplus.org/philosophy/transhumanist-declaration/. (검색일 2019. 6. 12)